

제 187 호

성체와 성혈 대축일

1976. 6. 20.

순정이

발행인	김종택
인쇄인	법석규
주간	조성호
편집	한상갑

편집실 : 전주시 서노송동 560의 6
전주교구청 내 (전화 35098)

● 칼론 ●

줍주린 자에게

빵이 되자

강인찬 신부



하느님께서 하신 업적 가운데 아주 능하신 말씀이 있다. 우주가 시작하고 우리 각자의 존재가 시작할 때 하신 창조의 말씀이다. 제자들도 예수의 말씀 가운데 저항할 수 없는 힘을 발견했다. 주님이 반신불수 병자에게 “일어나 네 평상을 가지고 돌아가라”고 명했을 때 그 병자는 그렇게 했다. 예수는 파리세이 시몬의 집에서 죄녀에게 “네 죄를 사한다”고 선언하셨다.

그러나 여기 행동자체는 별로 찬란하지 않는 기적이 있다. “이는 내 몸이니라” “이는 내 피니라” 하신 그 말씀과 행위는 그렇게 찬란하지 못했다. 외관으로는 조그만 밀떡과 포도주에 불과하나 위대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현존이다.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의 능하신 말씀자체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어떤이들은 <성체>와 <성혈>에 대해 무시할 것이다. 그러나 하느님의 자녀가 되고,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앙이 전제되어야 한다. 신앙이 없는 사람은 축성된 성체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것이다. 역시 하느님의 말씀에도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신앙은 구원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다.

우리는 미사성체 중에 말씀에 의해서 빵 안에 그리스도께서 현존하심을 신앙으로써 바라본다. 말씀으로 축성된 이 빵은 가장 고귀하고 값진 빵이다. 썩어 없어질 그런 빵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는 빵이다. 외관상의 빵이 변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을 변하게 하는 주님이 현존하는 빵이다. 우리가 영성체할 때 우리안에 변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우리인 것이다.

그런데 신앙인으로써 미사참례나 영성체하기를 게을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별다른 큰 이유도 없이 자기도 모르게 그런 습관이 생긴 것은 아닐까? 아

예 노력해 불러는 마음도 갖지 않는다. 부족한 신앙심은 의지를 마비시키고 신앙인의 기쁨을 꺾어버리고 오히려 마음의 부담을 느끼게 한다. 요한복음 6장에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 보자. “정말 잘 들어 두시오. 만일 당신들이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또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당신들 안에 생명을 간직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고 나는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릴 것입니다.” (요한 6장 53-54절)

우리는 미사때마다 믿음으로써 자그마한 행위으로써 위대한 일을 하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고, 생명의 빵인 성체와 성혈을 받아 먹을 수 있는 은총의 순간을 갖는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히 당신 사랑을 주고자 하신 말씀이다. 우리는 미사참례와 영성체로서, 그리스도와 하나되어, 그리스도께서 당신 몸을 주시듯이 우리도 사랑의 빵이 되어 자기를 요구하고 갈망하는 줍주린 자들에게 자기의 일부를 나누어 주도록 하자. <고창 천주 교회>

이 주일의 미사 해설

* 그리스도의 성체와성혈 대축일 *

기도서 p. 320

오늘은 성체축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린 희생제사로, 하느님과 인류사이에 영원한 새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성체성사는 이 희생제사를 오늘, 이 자리에 되풀이 하는 기념제입니다. 미사 때마다 찬상 음식으로 당신의 백성을 먹이시는 주님의 자애로우심을 감사드리는 날입니다.

□제1독서 (출애굽기 24장 3-8절)

시나이산에서 모세의 중재로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계약이 체결됩니다. 계약문을 낭독하고 나서 제단과 백성 위에 피를 뿌렸습니다. 이것이 주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계약의 피’였습니다.

□제2독서 (히브리 9장 11-15절)

그리스도는 신약의 유일하고 참된 대제관이십니다. 당신의 피를 흘려 새 계약을 체결하시고, 영원한 지성소인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그분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깨끗이 만듭니다.

□복음(마르코 14장 12-16절, 22-26절 p.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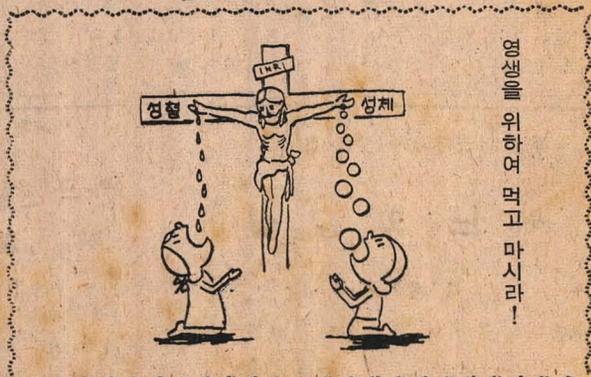
최후의 만찬 때, 예수께서는 새 계약을 체결 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 당신이 흘리시는 ‘계약의 피’, 곧 성혈의 잔을 돌리십니다.

□영성체 후 묵상

이 미사중에 우리는 주님이 얼마나 자애로우신지 맛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믿고 그 어른만을 섬기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계약을 보시어 주님은 ‘알곡의 진미’를 맛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밀떡과 포도주의 형상을 취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계약의 상대방께서 우리 영혼에 영주하시는 것입니다. 계약의 내용을 보증하시기 위하여입니다.

과연 성체성사에는 하느님의 사랑이 결정되어 있고, 온갖 좋은 찬상 선물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순정이 산책



□가톨릭 농민회 홍보□

비료 판매와 관련잡부금 징수 금지

—어기면 책임자 문책—

〈동아일보 76년 4월 15일자〉 「농협 도지부는 14일 비료를 판매할 때 출자금을 비롯한 다른 잡부금 등을 일체 징수하지 말라고 각 군 조합에 지시했다. 이 지시에 따라 도지부는 앞으로 비료판매와 관련 잡부금 징수 등으로 물의를 일으킬 때는 해당조합 책임자를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도지부내 각 군조합은 단위조합장들로부터 이에 대한 각서를 받도록 하고 사무실 앞에 조합비등을 비료대와 함께 받지 않는다는 알릴을 게시했다.

〈해설〉 농협 자체자금의 조성계획에 따라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용자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공제하는 등 조합원의 출자 좌수를 늘리는 각가지 방법이 전개되고 있는데 이것은 조합당국의 부당한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다.

물론, 조합원의 출자금이 많아서 조합의 자체자금을 많이 확보하고 자금의 외부의 존성을 하루바삐 탈피한다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는 하나, 조합원의 자발적 의사에 반하여 증자토록 한다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엄연히 법 23조에는 1좌 이상만 가지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2좌, 3좌 이상 갖도록 조합원에게 강권하는 것은 물건을 강매하는 것과 다를바 없으며 의무를 가중화 시키는 위법적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참조: 농협과 조합원 p.65)

—농민회 전북지구 연합회 제공—

3.1 사건 공판기

문 규 협 신부

6월 12일 본 교구 문정현 신부님등 세칭 3.1사건에 관련시켜진 분들이 구속된지 100일이 되는 날이다.

역시 토요일로써 5회 공판이 있던 날이다. 날씨가조차 이분들의 고통을 애달피함인지 우울하다. 이 날에는 김수환 추기경을 비롯하여 윤공희 대주교님, 최재선 주교님등 많은 신부 수녀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10시 20분에 공판이 시작되었다. 그야말로 최대로 요약하여— 재판장에 의하면 공판조서 초안이라는 것이 그렇다는데—전 공판에서 신문된 사실에 대한 조서 낭독으로 매치하였다. 이에 대하여 변호인단은 형사 소송법에 의거 하여 재판조서에 의한 낭독과 동시에 이해 제기 증감수정 異義제기 기회를 줄 것을 요구하였다.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전 사실은 保持되어야 하며 이는 공판조서에 의해서 되어서야 한다. 그런데 5회공판을 가진 현재 한번도 제대로 작성된바 없다.

속기록에 의하여 공판조서가 작성되는데 그 방대한 것을 일주일 동안 하기 힘들다는 재판장의 구구한 변명이 따른다.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변호인단의 말씀요지와 같이 매주마다 그것도 토요일에만 전례없이 공판을 하는데, 험겨워서 법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조서가 되지 않았는데 무엇이 바빠서, 왜 그렇게 서둘러야 하는지 모를 일이다.

매 공판때마다 매번 다음부터는 공판조서에 의해서 하겠다고 하고서 변명이 공수포로 던지고 그냥하는 것은 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무엇에 의해 되는가 모르겠다는

것이 변호인단의 말이다. 이에 공판조서는 형사규정은 훈시 규정이며 따라서 반드시 조서되어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재판장의 구구한 해석이다.

훈시 규정이라 불려 왜 그 훈시를 지키지 않는가 하는 것이 변호인단의 반문이다. 동시에 법정을 모독한다는 경고 비슷한것을 받았지만 마치 기차에 실려가는것 같이 어떤 짜여진 각본에 의한 재판같다는 변호인단의 말을 듣고 보니 딱 단려진 방문을 열어 놓은듯한 기분이 나의 솔직한 기분이었다.

10시 50분 10분간 휴정선언.

실제는 10분 휴정이 아니라 1시간 휴정이 되어 11시 50분에 다시 시작되었다.

공판조서에 관한 형사 규정에 대한 재판장의 해석이 있는 다음 변호인단의 반문이 되었다. 변호인이 공판조서 열람하고 거기에 대한 異義 제기는 형식이 아니라 피고 보호 위한 피고와 변호인의 권리이다. 그러므로 이는 형식이 아니다. 따라서 변호인에게 조서 열람이 되지않는 상황에 이의제기는 불가능한 상태다. 이해제기, 증감변경의 청구 기회 요구가 있었다. 이와 동시에 재판장의 폐정 선언으로 5회 공판은 끝나고 말았다. 폐정선언과 동시에 방청하고 있던 관련피고 부인 7명이 동시에 아빠! 하는 애절한 부르짖음과 함께 피고석에 나가는 순간 온 법정엔 숙연해지고 말았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승리하리라”라는 찬송가가 고막을 때리는 순간 눈동자가 미끈해졌다.

그렇다. 우리는 승리한다. 진리는 마땅히 밝혀져야 하기에 밝혀지고 만다. 우리는 그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기다린다. 진리가 있는 곳에 정의와 평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기다림을 성취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나?

여성 여러분에게 뭇을 팝니다

세느의상실

최준자(로사리아)

전주시 중앙동 전주극장 동편입구

2-6219

☆교형 여러분의 집☆

한국연탄은수보일러

부활상회

전주시 전동 3가 26~17번지

〈매곡교 사거리〉 전화 ㉠ 2143

전주 대리점 대표 주원배(실배들)

㉠ 언제나 찾아주세요.

신자들의 건강 센터

성심당한약방

이상범(필노리아노)

육교 밑 구북부배차장 옆

전화 ㉠ 4544

고리교실 ③

마르꼬 복음서

왕 수 해

저자 : 마르꼬의 이름을 원래대로 표기하면 요한 마르꼬이다. 예루살렘의 초기 신자들은 한동안 마르꼬의 모친집에 모여 기도하였고, 사도 베드로가 탈옥하여 처음 찾아간곳도 같은 집이었다. 이처럼 마르꼬는 어려서 부터 초대교회와 관련을 맺고 있었고 사도들로부터 몸소 배울 수 있었다. 마르꼬는 45년경 사도 바울로와 바르나바의 조력자로서 그들과 함께 제일차 포교 여행을 했으며, 베드로가 자기의 「아들」이라고 소개할 정도로 사도 베드로와 깊은 친분이 있었다. 성화에서는 흔히 마르꼬를 날개달린 사자로 표현하고 있다. 이것은 마르꼬 복음서에서(1장3절) 세례자 요한을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라고 묘사한 것을 예술가들이 포효하는 사자와 비교한데서 연유한 것으로 본다. 신약성서 이외의 다른 전승에 따르면 마르꼬는 알렉산드리아 첫 주교로 순교하셨다고 한다.

저작 장소와 연대 : 전승에 의하면 마르꼬 복음서는 사도 베드로와 바울로의 순교 후 로마에서 저술되었다고 전해진다. 두 사도는 약 65~67년 사이에 순교하셨다고 추측되며 예루살렘 멸망이 70년에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서는 70년대 이전 60년대 말기에 기록된 것으로 학자들은 단정하고 있다.

문학 및 신학적 특성 : 마르꼬 복음은 사 복음서중 가장 오래된 것이고 첫 복음서라는 것이 확실하다. 마테오와 루카는 자기들의 복음을 서술할 때 마르꼬 복음을 기초로 했기 때문에 서로 공통된 점이 많아 세 복음을 공관복음이라 한다. 마르꼬는 1장2절에서 복음서의 표제를 붙이고 1장2절~13절까지 서언으로서 세례자 요한과 요르단 강에서 하느님의 계시를 서술한 뒤에 복음을 새 무대로 나누어서 묘사한다. 첫 무대는 갈릴레아 지방으로 (1, 14~6, 13) 이곳에서 예수는 설교로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12사도를 선택하여 공동생활을 하시고 그들을 파견하신다. 둘째 무대는 요르단강 건너 외교지방을 거쳐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이다(7,24~10,52). 특히 8장29절에서 베드로의 고백은 절정을 이루며 마르꼬 복음을 양분하는 분수령 구실을 하고 이후 9장 부터는 수난사의 서막이 시작된다. 셋째 무대는 예루살렘 입성과 수난과 십자가의 죽음이 따른다 (11, 1~15, 49). 끝으로 빈 무덤 사화와 예수의 발원기사로 마르꼬 복음은 끝난다(16, 1~20).

마르꼬는 복음서를 쓸때 예수의 일생이나 전기기를 쓰려고 한 것이 아니라 복음 즉 예수안에 실현된 인류의 구원소식을 전하려고 한 것이다. 특히 사도들의 설교를 들음으로써 신앙을 얻은 자들에게 그 설교의 배경인 예수의 말씀과 행적을 보여주시므로써 신앙의 확실성을 주고 참으로 예수는 하느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마르꼬는 사람의 아들, 다윗의 후손 등의 칭호를 사용하여 제자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대망이 예수안에서 이루어졌고 인류가 갈망하는 구원이 성취됨을 강조하고,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말한다.

요십이 (151) 김병오



언제나 애용해 주십시오

입 금 님 찾 집

전주 전신전화국 앞
전화 ⑤ 5 0 1 3
김 원 준 (야코버)

여자 보세공 모집

- 1. 자격 : 17세 이상
- 2. 모집인원 : ○ ○명
- ※수시 모집함
- 3. 연락처 : 전화 ⑧8466
전주시 전통성당 골목
김영환 (아오스님)

김 용 길 양복점

교우 여러분과 결혼 예물은
특별 염가 제공
정병준(정아우구스티노)
전주 중앙동 조흥 은행 앞
전화 ⑤ 3 5 1 9

교우 여러분들을 특별 우대함

농약, 씨앗, 농기구

고 농 농약 사

전주시 전동 1가 303의 7
김포 전화 ②4740번
박 태 수 (벨라도)

교우들의 선물 센터
전자, 새살림, 기념품, 완구

아세아 종합 스토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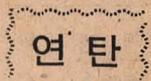


김영옥 (로모알드)
남문 신탁은행 앞
전화 ②4007, ②7007

◎교우 여러분께 특별 봉사함
새롭고 저렴한 연탄보일러 온돌 안내
한국 온수 산업사
전남북 총판, 기술보급소

군산지점 7211
정읍지점 2157
부안지점 736
이리시 인화동2가65-16 (전화 4940)
한 동 압 (모이세)
※각 지방 대리점 구함

불러 주시면
언제라도



어름 신속, 정확, 친절
배달하겠습니다
이 영 희 (다두)
◎전주시 전통성당 골목
(전화) ② 8 4 6 6

제 2 6 지 구 각 분 당 소 식

공공지사항

1. 평신도 지도자 양성을 위한 피정 및 평범 임시총회 : 6월 26일 오후 2시~27일 오후 5시까지, 가톨릭센터 ① 대상자-각 분당 사도회 및 교구 단위 액손단체 대표 1명씩. ②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문 발송 예정임.
2. 조국을 위한 월요 기도회 (6월 21일<월> 오후 8시, 가톨릭센터) 많은 참석 바랍니다.
3. 교구청에서 취급하던 제병 7월 1일부터 성체회 수녀원에서 취급 편의상 장소가 바뀌었으니 필요하실때는 아래 주소로 연락하시면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중노송동 361 성체회 수녀원> 전화 ③3231
4. 문정현 신부님 위한 헌금 누계 800,061원 감사합니다. 고산분당(4,000원), 천호(10,700원), 안십(1,800원), 석장(3,500원), 구제리(2,500원), 수터(1,500원), 천호김복례, 김판순, 백석 송철현, 수척 최발바라(각1,000원), 화산김복례, 박안나, 음수 유발바라(각 500원).
5. 교황대사 교구 방문시 국군묘지와 누갈다 묘지, 성직자 묘지에서 촬영한 사진이 교구청 사무록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신청해 주시죠.

(중암)

주 임 신부 이 대 권
수석 보좌 신부 함 김 함
제2 보좌 신부 한 김 함
사 도 회 장 이 상
관 도 회 장 이 상
총 협 동

전화 ③3651
③3874

1. 주임 신부님 6월 29일 영명축일 : 27일 공식 미사후 축하식 ②영육간에 기도와 협조 바랍니다.
2. 성모회 월례회 : 오늘 공식 미사후
3. 유아세례 : 25일(금) 어머니 미사후
4. 전례분과 위원회 모임 : 26일(토) 저녁 8시반, 사제관 3층
5. 대학생 모임 : 매주 공식 미사후(대학생회 회합실)
6. 중앙 신용협동조합 조합원께서는 금번 저축 생명 공계 및 대부 보증공제 조합 가입을 기하여 필요하시니 6월 25일까지 신 주민등록증과 조합에 제출된 인감을 지참 사무실에 재 확인을 바랍니다.

(노송동)

주 임 신부 공 아 영
사 도 회 장 조 해 철

전화 ⑦0732

1. 애령회 간부 월례회 : 오늘 10시 미사후
2. 축하합니다 : 결혼한 후 입교하신 5쌍 10시 미사중 흥인강복
3. 중·고등학생 : 교리시간-매주 토요일 오후 6시반, 미사시간-매주 토요일 오후 7시반
4. 성 프란치스코회 청년회 : 매주 오후 8시반
② 청년남.녀 회원은 빠짐없는 참석 바랍니다.

(덕진)

주 임 신부 박 중 근
사 도 회 장 김 용 환

전화 ③2182

1. 신축 위원회 이사회, 청년회 월례회 : 공식 미사후
2. 중·고등학생 분당, 공소 친선 체육대회 : ① 일시-27일(일), ② 장소-경기장, ③ 참가비-1인당 200원 ④ 준비물-도시락
3. 어린이 미사시간 변경 : 토요일 오후 5시, 교리시간-오후 4시
4. 학생과 젊은이의 시간 : 토요일 오후 8시
5. 예비자 교리 : 주일 공식 미사후
6. 성체축일 전야 성체강복 : 토요일 오후 9시

(복자)

주 임 신부 김 중 길
사 도 회 장 조 성 호

전화 ③5238

1. 반 회 합 : 22일(화) 2반 최미례사제매, 김발도로메오 반장, 다4가, 23일(수) 3반 김바울사제매, 신발바라반장, 다4가, 24일(목) 4반 양배도니카씨 배려수산나 반장, 다3가
2. 교무금이 아직 미납이신 분은 속히 완납합니다.

(서학동)

주 임 신부 오 험 택
사 도 회 장 박 장 준

전화 ③2276

1. 반 회 합 : 반장님께서 반원 동원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2일(화) 15반, 23일(수) 16반, 24일(목) 17반, 25일(금) 18반, 29일(화) 7.8반, 30일(수) 6반, 7월 1일(목) 3.4.5반, 2일(금) 1.2반
2. 성 가 정 회 : 공식 미사후
3. 반 회 합이 끝난 반원께서는 반드시 사무실에 다녀가십시오
4. 성당 지붕 개수공사 헌금 : 장남준(3만원), 박장준, 김재열(각 2만원), 한형수, 이정빈(각 1만원), 강순옥, 김순덕, 한을순, 한동섭(각 5천원), 김한기, 오상달, 최수선, 박기림(각 3천원), 김진배, 김중경, 진란식, 오창순(각 2천원), 이양환(1천원), 이익순(5백원) 계 131,500원
②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전동)

주 임 신부 김 함 철
보좌 신부 문 규 현
사 도 회 장 윤 영 모

전화 ③3222

1. 꼬마씨름 월례회 : 오후 1시반
2. 공동체 묵상회 : 26일(토) 오후 3시~27일(일) 오후 5시까지, 남녀 구별없이 50명, 회비-1,000원(저녁, 점심식사 함께)
3. 예비자 교리 : ① 미혼 남.녀, 남자 어른-수요일 저녁 미사후 ② 중·고등학생-토요일 5시 미사후
4. 주일학교 어린이 미사 : 토요일 오후 5시

* 각 분 당 의 금 주 간 소 식 과 지 난 주 일 봉 헌 금 *

지구	분 당	소 식	봉 헌 금	지구	분 당	소 식	봉 헌 금
제 1 지구	고 김 수 신 태 인 성 창 계 류 인 음	학생회 월례회	8,946원	제 3 지구	주 현 동 창 인 동 황	27일은 교황주일입니다.	40,500원
		청년 연합회 월례회	22,750원			성신회 정기총회	52,525원
제 2 지구	대 들 명 야 동 동 열	제1차 구역미사 실시	15,630원	제 4 지구	중 안 노 송 동 덕 진 자 서 학 동 전	성모회 월례회	74,195원
		젊은이 미사와 성서연구	6,340원			애령회 간부 월례회	29,296원
		신용협동조합 1주년 기념행사	48,285원			신축 위원회 이사회	15,140원
		성모회, 전례 위원회 월례회	28,475원			교무금을 속히 완납합니다.	24,895원
		구역장회, 학생회	18,460원			성가정회	14,870원
		예비자 교리	12,200원			공동체 묵상회	90,035원
제 3 지구	고 금 여 삼	주일학교 능변기 방학	3,795원	제 5 : 6 지구	무 장 진 남 순 임	주일 미사시간 변경	8,735원
		성우회 월례회	15,610원			미사시간에 늦지 맙시다.	5,350원
		공동 모내기 작업	7,545원			학생회 월례회	14,605원
		사도회 월례회	13,650원			오호촌 공소 자모회, 마리아회	14,605원
						26일(토) 신앙강좌	4,315원